

코로나19 확산방지 '총력'

군산시, 추석 특별방역 종합대책 수립 비상근무체계 돌입

군산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오는 26까지 2주 동안 코로나19 특별방역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비상근무체제로 돌입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시민들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 중·대형마트, 수산물종합센터, 식당, 카페, 주요 관광지 등 다중이용시설과 종교시설 등을 대상으로 점검반을 편성하고 방역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보건소는 연휴기간 중 확진자 급증 상황에 대비해 대규모 신속검사가 가능하도록 채취 긴급지원팀을 구성한다.

또한 선별진료소 비상인력 사전확

보와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해 빈틈없는 방역·의료대응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연휴기간 동안 자가격리자와 해외입국자 관리를 위한 자가격리 전담반을 구성해 자가격리자 명단확보 시 전담공무원 신속지정과 격리자의 위급상황 발생시(병원이송 등) 동행, 격리자 이탈 예방을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 이탈 의심자 불시 현장 확인, 방역수칙 위반 신고 민원 신속 대응 등을 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확진자가 급증하고 연휴기간 중 상당수가 타지역 방문 또는 소모임을 통한

만남을 가질 것으로 예측돼 연휴기간별 대응계획을 수립했다.

연휴기간 전 외국인 대표자 및 외국인근로시설, 인력사무소에 타지역 방문 및 단체행사 자제요청 공문 발송과 연휴 후 반드시 PCR검사 후 근로에 투입할 것을 현장방문 및 공문 전달을 통해 요청했다.

연휴기간 중 외국인 밀집지역인 오식도동과 미동동 등의 지역에서의 종교행사, 단체운동, 집단행사 등 단속을 위해 1일 3회 집중 순찰하며 연휴기간 후 거리두기 행정명령 마지막날인 오는 10월 3일까지 관내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연휴 후 확진자 발생 추이를 점검하도록 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익산시는 제17회 천만송이 국화축제를 오는 10월 26일부터 11월 7일까지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천만송이 국화축제 내달 26일

익산시, 11월 7일까지 코로나 예방 전시형 개최

익산시는 제17회 천만송이 국화축제를 오는 10월 26일부터 11월 7일까지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익산시는 코로나19 예방과 시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전시형 축제로 전환해 행사를 추진한다.

시는 축제에 앞서 오는 10월 20일부터 11월 14일까지 마곡사지 등 15개소에서 작품 등을 전시한다.

올해 축제는 '정원을 주제로 지역을 브랜드화하고 시민들에게 쉽고 여유를 제공한다.

축제 메인 장소인 중앙체육공원은 '천만송이 국화정원'으로 조성되며 백제왕도정원, 국화형기정원, 보석빛정원 등 3개 테마로 운영된다.

백제왕도정원은 세계 문화유산도시 이미지 강화를 위해 왕도문케이트, 미

륵사지석탑, 왕궁대층석탑 등이 전시된다.

국화형기정원은 농가에서 재배한 국화를 활용해 조형물 등이 설치되며 보석빛정원은 LED 조명 등을 활용해 야간에도 즐길 수 있도록 꾸며진다.

신흥근린공원에 위치한 자연 경관형 국화정원은 행복정원과 가을꽃정원, 불레길로 구성된다.

이 공간에는 코스모스, 꽃백일홍 등의 가을꽃과 함께 국화 등을 감상할 수 있다.

시는 또 시청과 북부청사, 마곡사지 등에 희망정원을 조성한다.

유천·용안생태습지, 서동공원 등에는 자연친화형 힐링정원이 꾸며지며 중앙로, 주얼팰리스 등은 다이로움정원으로 꾸며진다.

/뉴시스

"김제시의 동서도로 행정구역 결정 좌시하지 않을 것"

군산시의회, 긴급 의장단회의 열고 대응방안 모색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14일 부의장실에서 긴급 의장단회의를 열고 김제시 동서도로 행정구역 결정 신청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장단은 전라북도와 새만금청이 새만금사업에 따른 지역 간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고 원활한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해 전북도 출장소 설치 등 임시행정체계 구축운역을 추진해 하반기까지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전라북도와 3개 시·군(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지역상생협약(2021. 6월)을 통해 '선(先) 개발, 후(後) 행정구역 논의' 협약을 체결했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만금 공공주도 개발 및 K-뉴딜 등 개발이 가속화되는 상황인 가운데 김제시가 행안부 내부지침을 지키지 않고 행정구역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14일 부의장실에서 긴급 의장단회의를 열고 김제시 동서도로 행정구역 결정신청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결정신청을 한 것은 지자체간 분쟁을 유발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되어야 할 새만금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동서도로는 지난 2월 국도 12

호로 지정되어 도로법 제23조(도로관리청)규정에 따라 익산국도청에서 관리 중으로 김제시는 도로관리에 대한 어떠한 관리도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군산=한경봉 기자

익산시, 추석 연휴 종합상황실 운영 코로나19·민생안정 도모

익산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와 민생안정을 위한 추석 명절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익산시는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11개반으로 구성된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시는 명절 연휴 기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상황대책반 운영과 주요시설 방역점검 등을 실시한다.

연휴 기간에는 백신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된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

인까지 모일 수 있음을 홍보하고 타지역 방문 후 복귀 시 PCR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 기간에는 지역의 의료기관 422개소와 약국 181개소가 당직의료 기관으로 지정·운영된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8일부터 22일까지 팔봉공설묘지 전체 시설을 폐쇄한다.

다만 연휴기간을 피해 오는 17일까지, 23일부터 28일까지 봉안당 개방시

간을 연장 운영한다.

또 오는 30일까지 온라인 성묘시스템인 **6월** 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성묘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연휴 기간 물가안정을 위해 추석 성수품 가격과 부정 축산물 점검 등을 실시한다.

이울러 불법 주정차 등 교통 불편 민원을 접수·처리하고 단속 등 비상사태에 신속 대응한다.

/뉴시스

군산시, ITS 지능형교통체계 국고보조사업 선정

군산시가 국토교통부에서 '한국판 뉴딜' 일환으로 추진하는 2022년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 국고 보조사업에 선정돼 국비 24억을 지원받는다.

이로 인해 2022년에도 ITS(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지능형 교통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지능형교통체계(ITS)는 첨단기술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수집, 가공해 교통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교통체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환경 친화적 미래형 교통체계다.

그동안 시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시 전역 도로망에 지능형 교통체계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대 구축, 첨단교통 정보기술을 적용해 교통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과

화화·자동화된 운영으로 도로 소통 시간 단축 및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ITS사업을 추진해 왔다.

또한 2022년 국고보조사업에는 페이퍼코리아·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으로 도심화장 중인 동부지역에 지능형 교통체계시스템을 확대 구축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노력했다.

이번 지능형교통체계(ITS) 국고보조사업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국비 24억원 시비 16억원 등 총 40억원이 투입됨으로써 지속적인 ITS 사업추진이 가능해졌다.

2022년 사업에는 스마트교차로시스템, 긴급차량우선신호시스템, 교통정보비대역시스템 구축 및 교통정보센터 내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군산=고병만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외국인원스톱 접종 실시

군산시가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들에 원스톱 접종을 실시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9일부터 보건소와 자동차융합기술원 생활관 등에서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임시번호 발급 및 예약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군산에서 꾸준히 외국인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원스톱 접종을 실시한다.

원스톱 접종은 15일부터 매주 2회(수, 목) 실시되며 예방접종센터(월명체육관)에서 안면(만30세 이상), mRNA(만18~29세) 백신을 접종한다.

시는 기존 미등록 외국인들에게 예약을 지원했지만, 외국인 접종률 제고와 추석 연휴기간 추가 확산 우려로 현장에서 등록 및 원스톱으로 접종을 추진한다. 외국인들이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하면 ▲임시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등록 ▲예약표 작성 ▲예약 ▲접종의 순서를 한번에 실시한다.

/군산=고병만 기자

군산시 '120생활민원 종합상황실' 운영

군산시는 다가오는 추석명절 연휴 기간에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20생활민원 종합상황실'을 편성,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도로, 교통 수도, 하수 청소, 보건, 환경, 식품 등 8개 분야 100여명으로 구성된 비상 근무반을 특별 편성해 도로 파손, 불법주정차 차량 지도 상 하수도 긴급보수, 쓰레기 처리, 비상진료 등 연휴 기간 발생하는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일반전화 120, 핸드폰 063-120으로 민원을 신청하게 되면 종합상황실 근무자가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연휴기간 운영하는 병·의원, 보건진료소, 약국, 음식점 등 생활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만큼 추석 명절을 맞아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연휴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